

반복되는 역사 <세계경제 2편>

역사에서 배우는 올바른 교훈은 무엇인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과거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하면 항상 어린 아이처럼 지내는 것이다. 과거의 노력을 무시한다면 세계는 늘 지식의 유아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부자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을 상대로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면서 자유시장, 자유 무역 정책을 강요해 왔다는 것이다. 이 사실 자체가 역사적 교훈이다.

장하준교수는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 가지>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그들 (나쁜 사마리아인들, 세계 강대국들)은 이렇게 말한다. “시장은 자유로워야 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에 참여하는 자원들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한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이윤을 높이는 일을 할 수 없다면 그들은 투자하지도, 기술 혁신을 할 동기도 잃을 것이다. 따라서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하지만 자유 시장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이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그 시장에 깔려있는 여러가지 규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규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언제나 시장에 개입하고 있고 자유시장론자 자체도 정치적이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시절 <보스톤 차 사건>도 영국의 높은 세금 때문이었으며, 결국은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이어진다. 또 미국은 노예 매매의 자유권을 둘러싸고 남북전쟁을 했으며,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차에 대한 무역 불균형을 막기위해 식민지 인도의 아편을 중국에 수출한다. 하지만 중국의 아편에 대한 높은 관세때문에 아편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게 되자 중국과 아편전쟁을 벌렸다. 결국 중국은 영국에 홍콩을 내어주고만다. 2008년 금융시스템 붕괴에 직면한 미국은 주택담보 대출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2000억달러라는 자금을 펴부어 국유화조치를 했다. 또 2009년에는 미국 자동차 3사가 부도위기에 직면하자 막대한 국가 빚을 내어 개인 회사들의 부도를 막아 주었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동화같은 일을 한 것이다. 그들은 자국산업을 시장자율화에 맡기지 않았다.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세계화>를 통신과 운송 기술에 비롯된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한다. 그러나 <자유무역>은 대부분 약소국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강요된 것이었다. <세계화>의 정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세계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강하면 자유무역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자신들이 불리하면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한다. 역사는 이 굴레를 반복한다. <보호무역> 조치는 경제위기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20 세기 이후만 봐도 1930 년대 대공황과 70 년대 오일쇼크, 그리고 미국과 일본간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1980 년대에도 예외가 없었다.

영국은 19 세기 중반까지 고도의 보호무역 국가였다. 1721 년 월폴 수상은 제조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법률제정을 한다. 수입되는 외국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크게 올리고, 제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 수입 관세는 크게 낮추거나 아예 없애버렸다. 공산품 수출은 수출 보조금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원되었다. 1820 년대 영국은 수입 공산품 평균 관세율이 45~55%인 반면에 네덜란드는 6%, 독일과 스위스는 8~12%, 프랑스는 20% 정도였다. 2 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한국, 대만 등 기적의 아시아 드림들이 사용한 경제 정책들은 영국 정책과 유사하다. 한국의 근대화는 박정희 정권의 보호무역 정책이 시발점이었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영국은 그들의 식민지들이 본국의 제품과 경쟁하게 될 제품은 본국이나 해외로 수출하는 것조차 금지했다. 영국은 미국과 같은 식민지에 대해서는 1 차 상품 (대마, 목재, 판재 등)의 생산을 장려하고, 수익성이 높은 하이테크 산업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정책을 펼쳤다. 1776 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보호관세, 보조금, 독점권 부여 등의 경쟁 제한 조치들이 향후 영국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19 세기 중반 영국은 산업혁명과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다른 나라들도 무역을 자유화하고 규제를 해제하기 시작하였다. <자유주의>의 세계질서는 영국의 패권아래 1870 년 즈음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일차세계 대전이 끝나고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자 각국은 자유주의를 버리고 다시 무역장벽을 쌓기 시작한다. 1930 년 미국은 자유무역을 버리고 관세를 법제화한다. 독일과 일본은 파스쥔과 대외 침략과 관련이 깊은 카르텔을

구성한다. 1932년 영국마저 관세제도를 다시 도입하면서 세계 자유무역 시스템은 붕괴된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부자나라들 간에 자유무역에 대한 진전이 있었으나 공산주의 국가들과 개발 도상국가들은 여전히 보호주의와 국가 정책 개입이 지속된다. 1970년대 개발 도상국들이 보호관세, 보조금, 규제를 바탕으로 한 수입대체 산업화가 실패를 한다. 반면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무역과 외국인 투자 개방으로 '경제 기적'을 이룩자 다른 개발 도상국들의 자성을 일깨운다. 거기다 1989년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보호무역주의는 무너진다. 세계 차원의 경제 통합이 심화되면서 문호개방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된다. 이에 범세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보강된다. 1995년 GATT가 무역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규제와 지적 소유권 같은 여러 분야의 개방을 강력히 촉진하는 기관 WTO(세계 무역기구)로 승격된다. WTO는 단기 금융을 담당하는 IMF와 장기 투자를 담당하는 세계은행 (IBRD)과 함께 범세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3대 핵심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공평하지 못한 기구들이다.